

# 윤석민 10억5천 삭감된 2억... '예비 FA' 안치홍 5억원

KIA 연봉 재계약 완료...인상 20명·동결 7명·삭감 17명  
양현종 23억원 동결... 김선빈 2000만원 오른 3억원

말 많고 탈 많은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 연봉 재계약이 완료됐다.

KIA가 29일 2019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4명과 계약을 마무리했다. 인상은 20명이며, 동결 7명, 삭감 17명이다.

FA 자격 취득에 실패한 투수 윤석민이 역대 최다 삭감액인 10억5000만원(삭감률 84%)을 기록하며 2억원에 도장을 찍었고, '예비 FA' 안치홍이 3억2000만원에서 56.3% 상승한 5억원에 재계약을 끝냈다. 또 다른 '예비 FA' 김선빈은 2억8000만원에서 2000만원(7.1%) 오른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양현종은 지난해와 같은 23억원(옵션 별도)에 협상을 끝내면서 올 시즌에도 KIA의 연봉킹 자리를 지켰다.

사실상 FA인 양현종을 제외하고 투수 고과 1위인 김윤동은 20% 인상을 기록했지만, 2억 돌파에는 실패했다. 지난 시즌 1억5000만원을 받았던 김윤동은 첫 제시액보다 인상된 금액에는 합의했

지만 3000만원 인상에 만족하며 1억80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다.

투수 임기준과 내야수 최원준은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임기준은 6000만원에서 66.7% 인상된 1억원, 역시 최원준도 7500만원에서 2500만원 상승한 1억원에 재계약을 했다.

'마운드 셋업' 유승철은 114.3%의 인상을 기록하면서 2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연봉이 수직 상승했다. 지난 시즌 2800만원을 받았던 투수 황인준도 103.6%의 상승률과 함께 5700만원의 연봉을 기록했다. 외야수 박준태도 3800만원에서 3200만원 인상된 7000만원에 계약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2017시즌 '우승 멤버'들은 연봉 삭감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투수 임기영의 연봉이 1억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000만원 삭감됐다. 포수 김민식(1억4000만원)과 한승택(6000만원)도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 깎였다.

지난 시즌 6.75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6패 4세



이브 5블론 세이브로 부진했던 김세현도 1억1600 기에 출전한 '3할 타자' 이명기(타율 0.302)도 기록했다. 3000만원이 삭감되면서 2억2000만원의 연봉을  
만원이 하락한 1억7400만원을 받게 됐다. 120경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임기영 "어제인 2017... 야구 즐겁던 '초심' 찾았어요"

지난해 29경기 평균자책점 6.26... 잦은 폼 변경에 부상 시달려  
"체력훈련 집중하며 스피드 올리기 주력... 선발·중간 어디든 최선"

'어제인 2017'을 외치는 KIA 타이거즈 임기영이 '마음'에서 2019시즌의 답을 찾고 있다.

2017시즌 '우승멤버'로 포효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임기영은 지난 시즌 부상과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고전했다.

어깨 부상으로 스프링캠프를 완벽하게 치르지 못했고, 이후 부진이 이어지면서 선발과 볼펜을 오가며 전전긍긍했다.

임기영은 2018시즌 29경기에서 6.26의 평균자책점을 찍으면서 8승 9패 2홀드를 기록했다.

2019시즌을 앞둔 임기영의 목표는 '어제인 2017'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임기영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부상이다.

임기영은 "작년에 너무 못했다. 부상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걸 안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다"며 "그동안 잔부상은 있었지만 팔꿈치, 어깨가 아파서 쉬었던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기대도 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캠프 때부터 캐치볼 자체가 안됐다. 캠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가장 컸던 것 같다"고 돌아왔다.

시즌 준비과정에서부터 임기영의 발목을 잡은 부상은 시즌 중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임기영은 "아프다 보니까 폼이 바뀌었다. 스피드를 내려고 힘으로만 던지다 보니까 팔이 올라가고 폼이 변했다. 힘으로만 던지려고 했다. 연습할 때는 되는데 마운드에 올라가면 힘이 들어가고 그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부상으로 시작부터 빠져버렸던 임기영은 지난 12월 보강 운동과 웨이트에 초점을 맞추고 몸만들기에 신경 썼다. 건강한 몸으로 치열한 내부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임기영은 '건강한 정신'도 이야기한다.

임기영은 "2017년도에는 던질 때마다 잘 되니

까 재미있었다. 선발 던지는 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해에는 자신감도 없고 마운드에서 생각이 너무 많았다. 표정 관리도 안 됐다"며 "집에서 심심할 때 (경기) 영상 많이 보는데 표정도 틀리다. 2017년에는 성적이 좋으니까 계속 웃으면서 했는데 지난해에는 마운드에서 죽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언급했다.

"감정 기록을 컨트롤 하지 못했다"고 반성한 임기영은 "생각에 변화를 주겠다. 신인 때 마음이 생각났다. 시키는 것 다하고 뭣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초심, 독기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마음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되는 스프링캠프. 치열해진 경쟁 속 임기영은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한다.

임기영은 "캠프에서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가면 다 경쟁이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맞다"며 "일단 이겨야 한다. 투수 쪽에서 좋은 선수들도 많고 살아남아서 선발이든 중간이든 역할을 해야 한다. 제일 좋았던 때 모습을 보여주자는 생각이다. 일단 살아남는 게 제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타자 형들과 상대팀 선수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다. 지난해보다 직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 변화구도 나가다 걸리고, 올해는 스피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그래서 웨이트 많이 했다"며 "제일 좋았던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제일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2017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BO 시범경기 3월12일부터 8일간

2019 KBO 시범경기가 오는 3월 12일 시작돼 20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KBO가 29일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시범경기는 각 팀별로 4개 팀과 2차전씩 8경기를 치르면서, 총 40경기가 진행된다.

KIA 타이거즈는 SK 와이번스(12·13일)를 시작으로 챔피언스필드에서 kt 위즈(14·15일), NC 다이노스(16·17일)를 상대한다.

홈 6연전을 치른 KIA는 이후 고척으로 올라가 19일과 2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갖고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경기는 오후 1시 시작되며,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49세 미켈슨, 통산 44번째 우승 도전

#### 내달 1일부터 PGA 투어 피닉스오픈 출전

시니어 투어 진출을 불과 1년 앞둔 49세의 나이에도 변함없이 정상급 기량을 펼쳐 보이는 필 미켈슨(미국)이 고향 같은 '골프 해방구'에서 투어 통산 4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미켈슨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스크트데일의 TPC 스크트데일(파71)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이하 피닉스오픈)에 출전한다.

피닉스오픈은 '골프 해방구'라는 별명이 말해주

듯 갤러리에게 '정숙'과 '매너' 대신 음주·고함·야유를 허용하는 독특한 관람 문화로 명성이 높다.

하루 10만명의 관객을 거뜬히 끌어모으는 피닉스오픈은 지난해 PGA투어가 선정한 '최고의 투어 대회'와 '최고의 팬 친화적 대회'에 뽑혔다.

미켈슨은 이 피닉스오픈과 인연이 각별하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미켈슨은 한동안 스크트데일에서도 살았다. 또 TPC스�크트데일과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애리조나주립대를 다녔다.

놓쳤던 투어 통산 44번째 우승도 달성한다.

그러나 세계랭킹 50위 이내 선수 22명이 출전하는 만큼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황금세대'의 선두 주자 자리를 넘보는 잰더 쇼플리(미국)와 맷 쿠처(미국)가 나란히 시즌 3승에 도전장을 냈다.

저스틴 토머스(미국)와 리키 파울러(미국)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 게리 우들랜드(미국)와 데저트 클래식에서 72번째 홀 비드로 미켈슨을 따돌리고 무명 반란을 완성한 애덤 롱(미국)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코리아 브라더스'도 일제히 출사표를 냈다. 세신랑 안병훈은 올해 들어 처음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한다. 배상문, 강성훈, 김민휘, 김시우, 임성재 역시 '골프 해방구'에서 시즌 최고 성적이라는 도전에 나선다.

/연합뉴스